

# 여헌학파의 동향과 만회당 장경우의 위상

박인호\*

## 목 차

1. 머리말
2. 여헌학의 학문 수수와 여헌학파의 동향
3. 장경우의 학문 연원과 교유 관계
4. 장경우의 여헌학과 내 위상
5. 맺음말

## [초록]

이 논문은 여헌학의 가학 전수와 선산·인동으로의 전파 속에서 만회당 장경우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만회당(晩悔堂) 장경우(張慶遇, 1581~1656)는 부친인 극명당 장내범(張乃範, 1563~640)과 아들인 남파(南坡) 장학(張爚, 1614~1669)과 함께 3대가 여헌 장현광을 시봉하였다.

장경우는 한강 정구가 사망한 후 여헌 장현광을 옆에서 시봉하면서 스승으로 모셨다. 1637년 장현광이 사망한 후에는 여헌을 위한 추송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그는 1639년 동문 제자들과 함께 여헌의 위판을 오산서원에 봉안하였으며, 스승의 문집도 직접 교정하였다. 1654년에는 학사 김응조, 난재 신열도, 청천당 장응일 등과 함께 강학 장소인 부지암에 서원 건립을 결의하여 건물을 세웠으며, 이듬해 오산으로부터 위판을 모셔왔다. 장현광의 원향 추진과 저술 간행에 장현광의 사자인 장응일과 함께 장경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장영은 장현광의 제자록인 『십철록』을 지으면서 장경우를 가장 높은 반열에 두었다. 정구의 원유들도 문도록을 지으면서 장경우를 고제로 삼아 입계하였다. 인동 장씨 문중이 중심이 되어 후손 중 출중한 자손을 제향하는 옥계사에도 증향되었다.

한편 장현광을 주향으로 모시는 동락서원에 장경우를 배향하려는 논의가 철종 말 거론되었는데 당시 계장에서는 장경우를 사문의 적통 제자라고 칭송하였다. 평생 스승을 보좌하였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으며 학파로서의 독자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문의 공으로 본다면 여헌 장현광을 제향하는 묘우에 단독으로 배향할 수 있는 고제라고 본 것이다. 1932년 동락에 영당이 복원되면서 1933년 영당에의 증사가 결정되었다.

[주제어] 장현광, 장내범, 장경우, 장학, 여헌학파

## 1. 머리말

이 논문은 여헌학의 가학 전수와 선산·인동으로의 전파 속에서 만회당 장경우가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만회당(晩悔堂) 장경우(張慶遇, 1581~1656)는 부친인 극명당 장내범(張乃範, 1563~1640)과 아들인 남파(南坡) 장학(張梲, 1614~1669)과 함께 3대가 여헌학파<sup>1)</sup>내에서 여헌 장현광을 시봉하고 추송하는데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만회당 장경우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없지는 않다.<sup>2)</sup> 게다가 만회당의 아버지인 극명당 장내범과 아들인 남파 장학에 대해서도 전문 논문이 있다.<sup>3)</sup> 그런데 이 논문들은 대체로 만회당 장경우의 문집을 바탕으로 생애와 철학적 인식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다시 장경우를 다루는 것은 기존의 글들이 주로 장경우의 학문과 사상을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사상과 활동이 여헌학과 내에서 어떤 위치에

- 1) 학파를 의미하는 단어로 학단, 그룹, 학파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특별히 학단이라고 할 때에는 작업의 성과물이 협업적 연구의 산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학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파는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서 성리학이라는 학술 교재를 가지고 연구하고 학문을 계승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여기서는 여헌학파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 2) 장인채, 2007, 『만회당 선생 장경우』, 『옥산연봉』, 여헌학연구회; 2007, 『만회당 선생』, 『극명당선생과 만회당선생』, 화산서원; 최정준, 2007, 『만회당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29; 2012, 『만회당 장경우의 생애와 학문』, 『여헌학의 전망과 계승』, 예문서원.
- 3) 장인채, 2007, 『극명당선생』, 『극명당선생과 만회당선생』, 화산서원; 장인채, 2009, 『남파선생』, 『여헌학단』 1, 여헌학연구회; 박학래, 2008, 『남파 장학의 생애와 학문활동』, 『동양고전연구』 33; 2012, 『여헌학의 전망과 계승』, 예문서원.

있으며, 또한 장경우의 위상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장경우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여헌학파의 동향과 장경우가 학파에서 담당하였던 역할과 후대의 추송 작업을 통해 그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 2. 여헌학의 학문 수수와 여헌학파의 동향

퇴계 이황에 의해 창도된 퇴계학파의 학맥은 그 다음 세대인 월천 조목,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등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런데 퇴계학파를 잇는 계열 가운데 안동권은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던 상황에 놓였으나, 상주와 인동 등 비안동권에서는 영남학계의 차세대 주자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상주권의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와 함께 인동을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었던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을 들 수 있다. 장현광이 16세기 말부터 지역에서 강학에 들어가면서 인동에서부터 차츰 경상좌도의 퇴계학권과 경상우도의 남명학권 일부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장현광은 임진왜란 중 영천 출신의 제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암이 가거처임을 확인하였으며, 1596년 여름에는 입암사우(立巖四友)의 권유로 이거하였다.<sup>5)</sup> 영천 입암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여헌에게 이거할 것으로 청한 영천 출신의 대표적인 제자는 동봉(東峰) 권극립(權克立), 우헌(愚軒) 정사상(鄭四象), 수암(守庵) 정사진(鄭四震), 윤암(綸庵) 손우남(孫宇男) 이었다.<sup>6)</sup> 여헌이 강학하였던 입암에는 1599년 별도의 강학처인 입암정사가 건립되었다.<sup>7)</sup> 입암에서의 강학은 이후 영천 일대가 여헌 학맥의 한 축이 되는 기반이

4) 여헌학과 내에서 만회당의 활동을 위상과 관련하여 소개한 글로는 김학수의 학위논문이 있다. 김학수, 2008,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5) 『旅軒先生全書(張顯光)』, 『여헌선생연보』 권1, 24년 병신.

6) 『永嘉世稿』 권3, 『東峰先生逸稿(權克立)』, 『동봉선생연보』, 25년 정유.

7) 『守庵先生文集(鄭四震)』 권3, 『연보』, 27년 기해.

되었다. 장현광도 1607년 입암정사에 대한 기문에서 보이듯이 입암에서의 강학에 심혈을 기울였다.<sup>8)</sup>

지난했던 임진왜란이 끝나고 여헌이 본격적으로 사학과 강학을 시작하면서 학문적 영역이 차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603년 의성현령 부임<sup>9)</sup>은 기존의 인동·선산과 영천권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의성 일대에까지 학문적 기반을 확장시킨 계기가 되었다.<sup>10)</sup>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여헌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605년 선산 원당에 서재인 원회당(遠懷堂)<sup>11)</sup>과 1606년 인동 남산에 거처 겸 서재인 모원당(慕遠堂)이 마련되면서<sup>12)</sup> 고향 일대에 강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1610년 낙동강 가에 부지암정사가 세워지면서<sup>13)</sup> 강학을 위한 근본 도장을 마련하게 되었다.<sup>14)</sup> 부지암정사는 여헌학이 학문적 독립성을 보인 출발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강학처로서의 부지암정사의 건립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양송 15현이었다. 양송 15현은 김종효(金宗孝), 장제원(張悌元), 장광한(張光翰), 장내범(張乃範), 조희도(趙熙道), 이수언(李秀彦), 박유문(朴有文), 장내도(張乃道), 장덕원(張德元), 신우덕(申祐德), 장내정(張乃貞), 박지을(朴之兪), 장경우(張慶遇), 장내목(張乃睦), 이충민(李忠民)이었다.<sup>15)</sup> 이들은 여헌의 초기 강학에 참여한 인물들로 출신 지역은 대부분 인동, 선산, 약목이며, 여헌과 인척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여헌의 휘하에는 고제 10현이 있었다. 여헌도 평소 호학하는 인물로 학문의 정진과 성취에 따라 10명의 인물을 기록하여 두었는데<sup>16)</sup> **이들이 바로 유진, 김응조, 정사진, 장경우, 신열도, 정극후, 조임도, 김경장, 권봉, 안응창이었다. 이들은 경상도 북부권, 영천권, 인동권, 의성권, 경상도 남부권을 대**

8) 『여헌선생전서』, 『여헌집』 권9, 「기」, 〈立巖精舍記(張顯光)〉.

9) 『여헌선생전서』, 『여헌선생연보』 권1, 31년 계묘.

10) 김학수, 2011, 「17~18세기 의성지역 여헌학파의 동향과 현실대응」, 『선주논총』 14, 32~37쪽.

11) 『여헌선생전서』, 『여헌선생연보』 권1, 33년 을사.

12) 『여헌선생전서』, 『여헌선생연보』 권1, 34년 병오.

13) 『여헌선생전서』, 『여헌선생연보』 권1, 38년 경술.

14) 『여헌선생문집』 권9, 「기」, 〈不知巖精舍記〉.

15) 『深谷先生文集(張悌元)』 권2, 「잡저」, 〈不知巖精舍襟腹文〉.

16) 『영가세고』 권4, 『省齋公逸稿(權對)』, 〈旅軒先生門下十賢錄〉.

표하는 인물들로 여헌학이 전개되어 나간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여헌학과가 영남지역의 기존의 학맥과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것은 광해군 말의 정국 동향 때문이었다. 인목대비(仁穆大妃)에 대한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1621년(광해군 13)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반대하고자 하였는데 전 영남권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광해군 정권 협력자에 대한 여헌학과에서의 비판적 시각은 1620년 의성 빙산서원의 심원록에 게재되어 있던 감사 정조(鄭造)의 이름을 원장이었던 신적도가 삭제하였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sup>17)</sup> 또한 1621년에는 여헌의 문인 김휴가 도산서원 심원록에서 정조의 이름을 삭제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sup>18)</sup> 심원록 삭제 사건에서 보듯이 삭제건을 주도한 사람들이 모두 여헌의 문인이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안동권을 비롯하여 의성, 인동 선산권까지 광해군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은 공유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이이첨(李爾瞻)이 국정을 농락한 죄로 1621년 참수소를 올리려고 하였을 때는 영남지역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이 참수소는 안동과 예안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는데 일부 남인계에서는 그 적합성을 두고 비판적인 입장이 개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복 정경세를 중심으로 한 상주 지역의 유생들의 비판적인 입장이 두드러졌다.<sup>19)</sup> 만회당 장경우는 참수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장경우는 소청의 지도부에 속하면서 소청의 사론을 주도해 나갔으나<sup>20)</sup> 유진을 비롯하여 상주에 거점을 두었던 여헌의 제자 그룹들은 참수소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여헌학과 내에서도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여헌은 산림으로 인조대 정국에 참여하였으나 정국 참여에 따른 입장 차이 때문에 차츰 영남권의 각 학파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1635년 상중 서자 출생설로 선현을 무함한 것에 대한 퇴계 변무소를 두고 여헌학과는 어디에 설 것인지를 요구받았다. 특히 장경우는

17) 『虎溪先生遺集(申適道)』 권5, 「부록」, 〈遺事(申埵)〉.

18) 『敬窩先生文集(金傑)』 권8, 「부록」, 〈行狀(金聖鐸)〉.

19) 김학수, 2007, 「1635년 퇴계변무소의 추진과 여헌학맥의 대응」, 『선주논총』 10, 162~169쪽.

20) 『晚梅堂先生文集(張慶遇)』 권1, 「서」, 〈示疏行諸儒〉.

소두로 차정되어 출청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인조정권에 참여하였던 여헌학맥은 퇴계변무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당시 소두로 차정된 장경우는 아예 소두를 사임하기에 이르렀다.<sup>21)</sup>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차츰 영남지역에서 여헌학파의 학파적 존립성에 위기를 가져왔다.

1637년 여헌의 사망 이후 이러한 위기는 더욱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여헌학파 계열의 후학들이 차츰 퇴계학으로 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파적 위기는 여헌의 가학 계승자들을 중심으로 여헌의 유문을 간행하고 강학 지역에 원향 수립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이 일은 여헌의 사자인 장응일을 비롯하여 인동 장씨 가학 계승자들이 더욱 앞장서 나갔다.

이에 따라 여헌의 가학 계승자와 초기 여헌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영천, 인동, 의성, 안동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불유사승론(不由師承論)이 일어났다. 이들은 스승의 학문을 상사(上師)가 없었던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불유사승론은 장응일과 장학이 크게 앞장 서 주장하였다.<sup>22)</sup> 그런데 그보다 한 세대 전인 극명당 장내범과 만회당 장경우는 본격적으로 불유사승론이 제기되기도 전에 이미 제문에 불유사승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23)</sup>

여헌의 급문록인 『여헌급문제현록』 기미본<sup>24)</sup>에 수록된 355명의 제자 가운데 가학을 계승한 인동 장씨들의 명단은 아래의 <표-1>과 같다.<sup>25)</sup>

21) 김학수, 2007, 『1635년 퇴계변무소의 추진과 여헌학맥의 대응』, 『선주논총』 10, 189쪽.

22) 김학수, 2008,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62~166쪽.

23)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2005, 『고문서집성』 79, 한국학중앙연구원. 제문 74의 張乃範이 지은 제문에는 “仰夫子如怙恃 依夫子如泰山”, 제문 61의 張慶遇가 지은 제문에는 “夫子之志 不在於小 夫子自期 不在於孔氏以下之人物”의 표현에서 보이듯이 여헌을 夫子라고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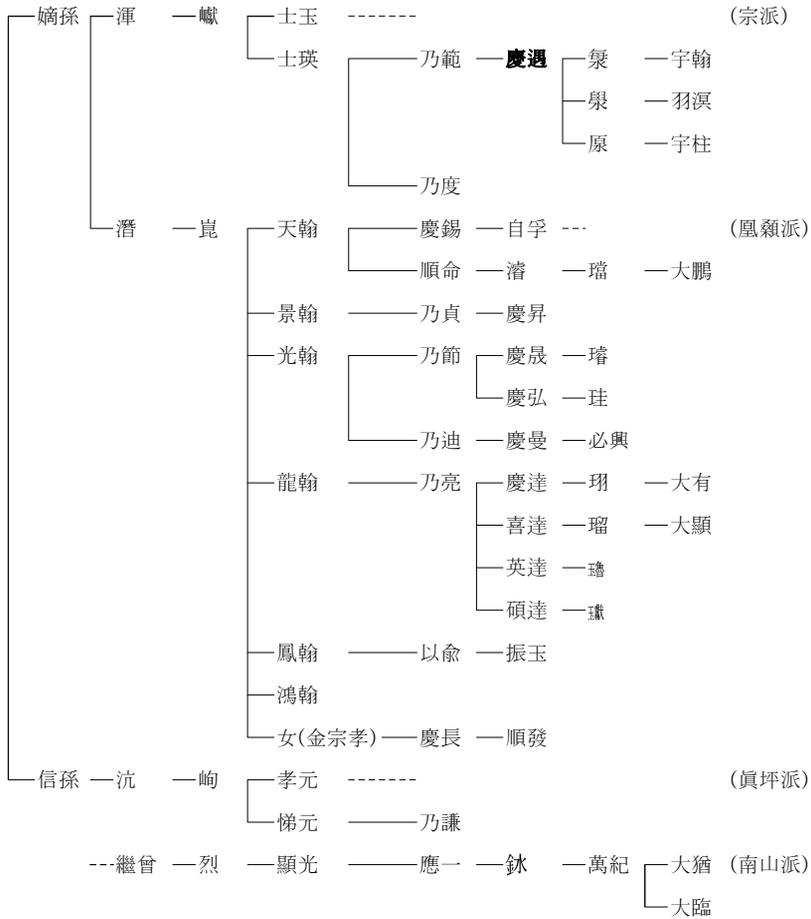
24) 『여헌선생전서』 하, 1983, 『여헌선생급문제현록』, 인동장씨남산파종친회.

25) 이외에 장씨성을 가진 인물로 張警百과 張文道가 있으나 장경백은 병진본 『여헌선생급문록』에 夏山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張文道는 迎日(기미본 『여헌선생급문제현록』 및 『고문서집성』 79, 제문 238)에서 거주한 유생으로, 본관을 알 수 없어 일단 제외하였다.

〈표 1〉 『여헌급문제현록』 수록 인동 장씨 후학의 인적사항

순번	성명	본관	자	호	거주	문집명	비고
2	張梯元	인동	중순	深谷	인동 진평, 가산	심곡집	양송15현 부: 張詢
3	張光翰	인동	사거	自惺亭	인동 황상		양송15현
5	張乃範	인동	정보	克明堂		극명당शल기	양송15현 부: 張士瑛 제: 張乃度
22	張德元	인동	사순	无憫堂	인동 율리		양송15현
41	張乃度	인동	입보	儉谷			양송15현 부: 張士瑛 형: 張乃範
62	張乃貞	인동	정보	守訓齋			양송15현
66	張慶遇	인동	태래	晚梅堂	석적	만회당집	양송15현, 여문10현 부: 張乃範 제: 張慶기, 張慶道
96	張乃謙	인동	익보	止窩	인동 진평		부: 張梯元
108	張慶道	인동	태언	晚溪	석적		부: 張乃範 형: 張慶遇, 張慶기
119	張以俞	인동	자유	知分軒	성주 벽진	지분헌집	부: 張鳳翰
156	張乃昌	인동	성보		인동 율리		부: 張德元
173	張彙	인동	거원	三優堂	인동 구포		부: 張慶遇 제: 張彙, 張原
183	張擧	인동	성원	南坡	인동 장곡	남파집	부: 張慶遇 형: 張彙 제: 張原
201	張乃睦	인동			인동		
218	張乃克	인동	명보	松齋			
226	張龍遇	인동	운경	丹溪	영주		부: 張汝華 제: 張龍變, 張龍見, 張龍慶
234	張龍變	인동	용경	自求齋	영주		부: 張汝華
254	張乃昌	인동	성보				중복
274	張慶達	인동	태형	晚翠堂			부: 張乃亮
298	張士珍	인동			군위		

〈표 1〉에 수록된 인동 장씨 문중 학자들은 인동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학을 계승하였던 인물들로, 고계 집단인 여헌 10현과 함께 장현광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고 학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특히 노력하였다. 이때 장응일과 함께 가장 주도적으로 장현광의 업적을 정리하면서 학파로서의 모습을 부지하려고 노력하였던 인물이 장내범-장경우-장학으로 이어지는 인동 장씨 종파의 3대 이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인동 장씨 가계도

### 3. 장경우의 학문 연원과 교유 관계

#### 1) 장경우의 학문 연원과 여헌 추승

만회당(晩梅堂) 장경우(張慶遇, 1581~1656)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 극명당

과 함께 여헌을 곁에서 시봉하였으며, 스승의 인동 정착과 인동에서의 생활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6)</sup> 그러나 그 동안 여헌에 대한 시봉의 역할에 집중하여 조명하고 또 학맥에서는 여헌으로만 좁혀 본 결과 만회당 장경우의 학문적 폭을 너무 좁게 설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극명당만 하더라도 한강과 여헌의 문인이며 만회당도 한강을 같이 모셨다. 따라서 만회당의 학문적 원인과 활동 배경으로 한강과 여헌을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회당의 가학적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버지 극명당 장내범(張乃範, 1563~1640)으로, 본관은 인동, 자는 정보(正甫), 호는 극명당(克明堂)이다. 극명당은 11세에 여헌 장현광에게 입문하였으며, 그 이후 한강 정구에게도 수학하였다. 동문인 낙재(樂齋) 서사원, 모당(慕堂) 손처눌, 석담(石潭) 이윤우 등과 친밀하게 지냈다.<sup>27)</sup> 후일 소암서원(嘯巖書院)에 제향되었다.<sup>28)</sup> 장내범은 양송(樑頌) 15현(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헌을 스승으로 모신 초기 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학맥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강도 역시 스승으로 모셨고 한강에 기울어져 있던 대구와 칠곡 일원의 인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sup>29)</sup> 여헌 장현광은 1600년 봄 입암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낙재 서사원 등 대구지역의 선비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 시작하였다.<sup>30)</sup> 이듬해 극명당은 여헌 장현광을 모시고 서사원, 여대로 등 대구 지역 선비들과 금호에서 뱃놀이를 하며 시회를 열었으며,<sup>31)</sup> 1604년에는 연경서원에서 직접 강을 하였다.<sup>32)</sup> 게다가 극명당 장내범은 1919년에 편찬된 기미본 『여헌선생

26) 장인채, 2007, 「만회당 선생 장경우」, 『옥산연봉』, 여헌학연구회; 2007, 「만회당 선생」, 『극명당선생과 만회당선생』, 화산서원.

27) 『克明堂先生實紀(張乃範)』 권1, 〈시〉, 〈서〉, 〈제문〉 및 권2 「부록」, 〈제문〉, 〈만사〉; 『慕堂先生文集(孫處訥)』 권6, 「연보」, 27년 기해(1599). 1599년 모당 손처눌이 칠곡 건령산 아래 녹봉에서 강회를 열었을 때 이윤우, 이인영, 장내범, 이홍우 등이 참가하였다.

28) 『극명당선생실기』 권2, 「부록」, 〈嘯巖書院奉安文(李彙寧)〉.

29) 장내범은 徐思遠, 李潤雨, 張顯道, 金宗孝, 朴成一, 趙玘 등과 鄭述, 張顯光, 徐思遠, 盧景任, 李潤雨, 朴成一 등에게 만사와 제문을 제출하였다. 장내범이 사망하였을 때 金應祖, 李道長, 張應一, 申祐德, 金慶長, 金喜長, 朴翥 등이 제문을, 金應祖, 金寧, 李道長, 張應一, 宋錫圭, 蔡稭, 金漢, 朴晉慶, 金玃, 呂爾弘, 李予, 呂燦, 金慶長, 蔡瀛吉, 朴愧 등이 만사를 제출하였다.

30) 『樂齋先生文集(徐思遠)』, 「낙재선생연보」 1, 경자(1600).

31) 『극명당선생실기』 권1, 〈陪旅軒先生泛舟於達城之琴湖徐樂齋呂鑑湖并二十三賢齊會酒後先生誦朱夫子武夷詩出載長煙重歸裝片月輕之句遂因分韻而得裝字〉.

32) 『낙재선생문집』, 「낙재선생연보」 1, 갑진(1604).

급문제현록』과는 달리 1916년 목판으로 간행된 병진본 『여헌선생급문록』<sup>33)</sup>에서 제자 가운데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다. 비록 연차에 따라 적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지만 극명당이 문인록에서 수제로 기록된 것은 후학들에게 비추어진 여헌학과 내 극명당의 위상을 볼 수 있다.

만회당의 학문 연원으로 한강 정구가 주목된다. 어릴 때 서천, 한강, 동강 세 분을 여헌이 모셨을 때 만회당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영특한 자질을 칭찬 받았다. 1604년 모부인의 상을 당하였을 때 슬픔이 지나쳐 몸이 상할 지경이 되자 이듬해 한강 정구가 직접 위문차 왔다.<sup>34)</sup> 1610년에는 한강 정구가 박이립으로부터 무고를 당하게 되자 도내 유생들과 함께 한강선생변무소를 의정하였다.<sup>35)</sup> 1606년에는 연경서원의 강회를 참석하였다. 서사원, 손처눌 등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만회당은 1609년, 1615년, 1625년에도 연경서원으로 나아가 강석을 열었다. 1609년은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과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이 당시 태실상사와 부사로 왔다가 같이 강회에 동참하였다. 연경서원은 대구 지역의 퇴계학 전통을 이은 곳이며,<sup>36)</sup> 만회당이 이곳에서 강학을 하게 된 것은 부자가 모두 한강의 학문을 이었기 때문이다. 1620년에는 한강 정구가 돌아가자 직접 문상하였다.

만회당의 족대부인 여헌 장현광은 만회당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스승이었다. 다음 <표 2>에서 보이듯이 만회당과 스승인 여헌 장현광과의 관계는 만회당의 어린 시기부터 사후의 추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sup>37)</sup>

33) 『여헌선생급문록』, 1916.

34)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三十三年乙巳(先生二十五歲) 寒岡先生臨慰問疾(先生既禫 哀喪成疾 鄭先生特來問之)”

35)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三十八年庚戌(先生三十歲) 與道內儒生 議定寒岡先生辨誣疏(時鄭先生被朴而立誣告)”

36) 홍원식, 2012, 「퇴계 이황 및 낙중 퇴계학과와 연경서원」, 『퇴계학논집』 11.  
구본옥, 2012,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 11.  
구본옥, 2014, 「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 57.

37) <표-2>는 『만회당선생문집』, 『연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표 2〉 만회당의 여헌 관련 주요 연보

연대	나이	장소	비고
1589	9		就學
1591	11	伽倻山	陪從
1592	12	金烏山, 墨坊寺	避倭
1594	14	聞韶	侍奉
1595	15	報恩	先師莅報恩
1596	16	立巖	侍奉 受中庸
1597	17	青松 涑谷	避兵
1598	18	奉化 道心村	陪從
1599	19	善山 月波村	陪從 受大學
1600	20	立巖	陪從
1601	21	仁同 礪溪松亭洞	侍奉 司爨累年
1602	22	不知巖	陪先師 泛舟于不知巖下
1603	23	義城	陪從
1604	24	月波村	先師解纜歸 先生歸省于礪溪
1606	26	仁同 南山	建慕遠堂
1607	27	慕遠堂	受論語
1608	28	吳山書院	宣廟昇遐 陪先師舉哀
		立巖	陪先師 出戒懼臺 西向哭
1610	30	不知巖	營建不知巖精舍
1613	33	吳山書院	參享禮爲相禮 先師亞獻
1617	37	慕遠堂	陪先師
1625	45	善山	省先師
1627	47		先師差定 爲仁同義兵將
1629	49	立巖	陪先師 入立巖留旬月而還
1632	52	吳山書院	陪先師 舉哀
1635	55	不知巖精舍	陪先師 舉哀
1636	56	吳山書院	陪先師 往吳山書院
1637	57	立巖	陪先師 立巖
		吳山	易簣晚勛齋 葬先師
1638	58		祭文 記聞錄
1639	59	吳山書院	祭文 奉安位版於吳山書院 校正先師文集
1641	61		遣子舉與同門諸公 議殺刊先師文集
1643	63		善山元堂 奉安先師眞像
1645	65	吳山書院	參謁吳山 尙賢祠
1655	75		奉安先師位版 不知巖書院

장경우는 1589년(선조 22) 9살의 나이로 부친의 명으로 집안 할아버지였던 여헌에게 나가 배우기 시작하였다. 여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1590년(선조 23) 여헌 장현광의 족질인 경암 노경임이 여헌을 찾아왔다가 장경우를 보고서 칭찬하였다는 기사나 1591년(선조 24) 여헌을 모시고 가야산을 유람하였을 때 유산록을 기록하였는데 일행이었던 서천(西川) 정근수, 한강(寒岡) 정구, 동강(東岡) 김우옹 세 사람이 칭찬하였던 기록으로 보아 어릴 때부터 영특한 자질을 보였다. 동강이 이름을 경회(慶會), 자를 대래(大來)라고 지어 주었는데 한강이 회(會)자는 우(遇)로, 대(大)자는 태(泰)자로 고쳐 주어, 이때부터 이름을 경우(慶遇)라 하고 자(字)를 태래(泰來)라고 하였다.<sup>38)</sup>

이듬해인 1592년 12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헌을 모시고 아버지 극명당과 함께 금오산으로 피난을 갔다.<sup>39)</sup> 이어 묵방사와 칠곡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성심으로 모셨다. 스승으로부터 아버지를 모시라는 명을 받고 1593년 극명당을 모시고 영해로 피난을 갔다. 피난 중에도 아버지와 함께 스승을 찾아뵙기도 하고 의성으로 모셔오기도 하였다. 1595년 여헌이 보은현감으로 출사하였을 때는 직접 모시고 보은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1596년 여헌을 모시고 입암에 가서 『중용』을 수학하였으며,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역시 여헌을 모시고 청송과 봉화로 피난을 가기도 하였다.

선산의 월피촌과 입암을 거쳐 1601년 여헌이 인동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옛 저택이 모두 불타버렸으므로 부친이 있던 송정동의 반계(현 석적 반계리) 극명당으로 여헌을 모셨다. 1603년 여헌이 의성현령이 되어 부임할 때도 모시고 의성으로 갔다. 이듬해 여헌이 돌아와 월피촌에 머물게 되자 만회당은 반계로 옮겨 거주하였다. 이때까지 만회당은 여헌을 직접 모시고 다녔다.

38)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十九年辛卯(先生十一歲) 陪從先師 伽椰之遊(時西川鄭相公寒岡鄭先生 東岡金先生 并會海印寺 遊連浹旬 先生侍奉將命 無異老成 承先師命 修遊山日記以獻 相公及兩先生 亟稱之不巳 先師曰諸公幸錫以名字 金先生始命之 曰慶會字大來 鄭先生曰 信美矣 然於渠不甚叶着 若以遇字代會字 泰字代大字 乃爲渠身榮慶遠到之祝矣 座中咸可之 遂定名與字焉)”

39) 박인호, 2008,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장현광의 용사일기를 중심으로』, 『선주논총』 11: 2010,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서, 119~154쪽.

1606년에는 종인들과 협의하여 남산에 여헌을 위한 거주지로 모원당(慕遠堂)을 지었다. 이때부터는 여헌의 사자인 청천당(聽天堂) 장응일과 함께 여러 일들을 주선하여 처리하였다. 1610년에는 여헌을 위해 외가의 정자가 있었던 낙동강의 강변에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를 영건하였다.<sup>40)</sup> 1613년에는 중건된 오산서원을 참례하면서 야은 길재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이 때 장내범은 초헌관, 장현광은 아헌관, 장경우는 상례로 참가하였다. 1625년에는 선산(善山)으로 여헌을 찾아갔다. 당시 여헌은 조정의 명을 받아 나아가다가 선산에 이르러 말에서 떨어져 다쳤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자주 찾아가 문후를 살폈다. 그해 11월 간송 조임도가 월피촌에 오자 같이 여헌에게 나아가 배움을 청하였다. 1627년에는 여헌이 좌도호소사가 되자<sup>41)</sup> 만회당을 인동의 병장으로 임명하였다. 1629년에는 여헌을 모시고 입암에 갔다가 돌아왔다. 1632년에는 인목왕후와 1635년 인열황후가 승하하자 여헌을 모시고 오산서원과 부지암정사에 가서 문상하였다.

1637년에는 여헌을 모시고 입암에 갔다가 극명당이 연로하여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돌아왔으나 여헌이 입암에서 돌아가실 지경이 되자 급히 가서 병환을 살폈으며, 결국 만옥재에서 사망하자 부친의 일에 처하듯이 성심을 다해 일을 처리하였다.

만회당은 스승이 돌아가신 후 여헌학과 내에서의 여헌 추숭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1638년 여헌의 소상을 맞이하여 제문과 기문록을 작성하였다. 기문록에서는 스승이 이룩한 평생 학문에 대해 한 가닥의 도맥을 찾고 천고의 경지를 더듬으며 물건을 관찰하는 안목을 통달하고 조화의 근원을 연구하였으니, 자품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있지만 부지런히 탐색하고 사변한 힘이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칭송하고 있으며,<sup>42)</sup> 스승이 읽지 않은 서책이 없지만 특히 성리학에 침잠하여 매일 정진하였음을 전하고

40) 『岐村先生文集(張龍翰)』, 「잡저」, 〈不知巖書堂創建文〉.

41)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정해(19일).

42) 『여헌선생속집』 권9, 「부록」, 〈기문록(장경우)〉. “先生自志學之年 至易簣之日 無一日而非學問 無一事之非工程也 尋一線之脈 探千古之域 洞觀物之眼 窮造化之原 雖其資品之有超詣於人者 而亦豈非探索之勤 思辨之力有以致之者哉”

있다.<sup>43)</sup> 그런데 이 기문록에서 만회당은 어릴 때부터 모시고 다닌 인연에서 시작하여 여러 대화와 일화를 소개하면서 여헌과의 관계에 대해 스승이 인도하고 진작하여 준 방법과 교육하고 깨우쳐 준 도는 마치 천지가 낳고 이루어 주는 덕과 같다고 하였다.<sup>44)</sup>

1639년 여헌 장현광의 대상을 맞이하여 동문 제자들과 함께 선사의 위판을 오산서원에 봉안하였으며, 스승의 문집도 직접 교정하였다. 1640년에는 여막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들 남과 장학을 보내어 스승의 문집 간행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1642년은 여헌 추승사업에서 큰 진전이 있었던 해로 이해에 『여헌집』이 간행되었으며, 성주의 천곡서원, 영천의 임고서원, 선산의 금오서원에서 제향이 결정되었다.<sup>45)</sup> 장경우는 1643년 선산의 사림들이 원당에 스승의 진상을 봉안할 때 김경장과 함께 참사하였다. 1645년에는 김경장, 장학, 배상룡 등과 함께 대흥사에서 모여 스승의 문집 간행사를 논의하였다.<sup>46)</sup> 1654년에는 학사 김응조, 난재 신열도, 청천당 장응일, 등암 배상룡, 간송 조임도 등과 인동에 모여 강학 장소인 부지암에 서원을 세울 것을 의정하고 건물을 세웠다.<sup>47)</sup> 1655년 오산으로부터 위판을 모셔왔으며, 북벽에 진상을 아울러 봉안하였다.<sup>48)</sup> 만회당은 1637년 여헌 사망 이후 1655년 부지암 서원에서의 위판 봉안에 이르기까지 여헌 장현광의 추승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 그리고 1656년 만회당에서 역책하였다.<sup>49)</sup>

만회당 장경우는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는 한강과 여헌을 모두 스승으로 모셨으나 한강이 돌아가신 후에는 여헌을 받들어 모시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

43) 『여헌선생속집』 권9, 「부록」, 〈기문록(장경우)〉. “先生於書無所不讀 而尤用心於性理之學”

44) 『여헌선생속집』 권9, 「부록」, 〈기문록(장경우)〉. “余早登先生之門 多年趨走於函丈之間 其誘掖之方 教戒之道 有如天地生成之德 而才本魯下 不能遵行其萬一 而斯文不幸 遽失依歸 終天之痛 曷有窮已 乃以晚悔自號 因略記其平日所聞見者 以備省覽”

45) 김학수, 2008,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48~259쪽.

46) 『藤庵先生文集(裴尙龍)』, 「연보」. “(我仁祖二十三年)乙酉(先生七十二歲)十二月十日 與張晚悔慶遇 金龜巖慶長張南坡舉 期會于大興寺 議定張先生文集刊行事”

47) 『등암선생문집』, 「연보」. “(我孝宗五年)甲午(先生八十一歲)三月往仁同 與趙潤松張晚悔諸賢 議建 旅軒張先生主院”

48) 『柏浦先生文集(蔡楨)』 권3, 「봉안문」, 〈不知巖書院奉安文〉.

49) 이상 만회당의 일생에 대한 내용은 『南坡先生文集(張舉)』 권3, 「행장」, 〈先考通德郎行英陵參奉府 君家狀〉과 『만회당선생문집』, 「연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여 진행하였다. 여헌 사망 후 만회당의 활동은 거의 여헌 추숭사업에 귀일되었다. 여헌의 원향 추진과 저술 간행에 여헌의 사자인 장응일과 함께 만회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아들인 장매, 장학 형제도 여헌에 입문함으로써 3대가 장현광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 2) 장경우의 교유 관계

만회당 연보에 보이는 교유관계 기사를 정리하면 <표 3>에서 보이듯이 만회당은 청, 장년기의 경우 스승인 한강으로부터 이어지는 학맥으로부터 많은 교류관계를 보이고 있다.<sup>50)</sup> 이 시기 만회당은 한강과 관련이 깊은 대구 지역 연경서원의 학맥과도 일정하게 교류하였다. 연경서원과의 관계는 한강 동문인 서사원(1550~1615), 손처눌(1553~1634)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지만 아버지 극명당 장내범을 이어 지속적으로 연경서원의 강회에 참석하거나 혹은 통강한 것에서<sup>51)</sup> 대구 지역 유학으로부터의 영향도 엿볼 수 있다.<sup>52)</sup>

그러나 말년으로 갈수록 선산과 인동에 독자적인 강학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제향처로는 김경장과 함께 원당에 여헌 장현광의 진상 봉안에 참여하거나 장응일, 채무와 협력하여 지역에서 죽정 장잠(張潛)의 상현사(尙賢祠)를 건립하였다.<sup>53)</sup> 강학처로 1651년 인동 남쪽, 학산(鶴山) 서쪽의 화산(花山) 아래에 화산서당을 낙성하였는데, 가르침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한결같이 여헌의 방식을 표준으로 삼았다.<sup>54)</sup> 또한 스승의 강학처인 부지암(不知巖)

50) 아래 교유 기록과 <표-3>은 『만회당선생문집』, 『연보』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51) 통강은 스승 앞에서 경전을 암송하고 지도를 받는 공부 방법이다. 장경우는 1609년 『중용』, 1615년 독서한 책, 1621년 『중용』, 1625년 『심경』 등을 통강하였다(『모당선생문집』 권6, 『연보』, 기유(1609); 『영모당통강제자록』, 42쪽).

52) 연경서원은 1563년 대구 유림에 의해 창건논의가 시작되어 1565년 낙성하였으며, 임진 때 소실되었다가 1602년 중건되었다. 시작부터 강학에 중점을 두어 17세기 초반까지 1, 2세대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만회당 장경우는 대체로 광재결, 서사원, 손처눌 등 2세대로부터 교육을 받은 3세대 학자들과 연령대가 비슷하다(구본욱, 2012, 『연경서원과 대구 유원 통강록』, 동방).

53)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十六年癸未(先生六十三歲) 往善山元堂 奉安先師眞像(善山士林 奉安眞像于元堂 先生與金龜巖 往參將事) 爲竹亭張先生 議立祠(竹亭立祠之論已久 先生與聽天堂張公柏浦 蔡公 更議營建 發文通告于士林)” 『옥산지』 5, 『향교』, 〈飛浪川 尙賢祠〉.

54)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二年辛卯(先生七十一歲) 花山書堂成(在府南十里許花山下 有五十尺細

을 서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기도 하였다.<sup>55)</sup> 이와 같이 생애 후반기가 되면 교유권이 여현 계열 인물과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승 사망한 후에는 장응일과 함께 스승에 대한 추승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표 3〉 만회당의 제현 교유 연보

연대	나이	교유 인물	비고
1590	10	盧景任	見先生稱之
1591	11	鄭昆壽 鄭述 金宇顛	錫以名字
1594	14	朴惺	靑巖 涑谷 有詩書論孟等書 往請剋日而還
1596	17	朴惺	拜 朴大菴于松生
1602	22	趙任道及鄉中士友	泛舟于不知巖下
1603	23	申悅道	與申懶齋悅道 朝夕講靡 申公深加敬服
1606	26	徐思遠 孫處訥	往參研經書院講會
1607	27	朴惺	哭朴大菴訃
1609	29	蔡楸	往參研經講會
1610	30	蔡楸	秋與蔡柏浦赴京 中六百試
1615	35	徐思遠	四月哭徐樂齋 九月往參研經講會
1617	37	孫處訥	孫慕堂來訪 仍共會于慕遠堂
1625	45		四月 往參研經講會 講心經
		趙任道	十一月 趙澗松來訪 趙公自月波村來
1626	46	趙任道 金大振 金杰	七月趙澗松金而遠大振金敬窩杰來訪
1628	48	申悅道	贈別申懶齋朝京序
1629	49	鄭四震 鄭克後	與鄭守菴四震鄭雙峯克後諸賢 共爲留侍 講究心近諸書
		孫處訥	十月孫慕堂來訪
1630	50	柳軫	柳修巖季華來訪
1631	51	趙任道	趙澗松來訪 先生與趙公侍先師坐 敢問晦齋退溪兩先生造詣
1636	56	趙任道	趙澗松亦在坐
1639	59	金慶長	與金龜慶慶長泛舟不知巖下 翫月遊賞
		趙任道	奉安位版於吳山書院 面囑趙澗松製奉安文 趙公製送之
1643	63	黃辰	黃漫浪辰來訪 黃公奉使日本 歸路訪先生于晚悔堂

瀑 滙爲潭 先生愛其幽深 嘗往來遊賞焉 鄉土友爲構草屋 以爲先生棲息藏修之所 ○ 或有來請業 則先生爲之鉤深奧義 反覆證明 壹以先師爲準의焉”

55)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六年乙未(先生七十五歲) 九月 奉安先師位版于不知巖書院(先生與金鶴沙申懶齋張聽天堂諸賢 建議不知巖先師講道之所 不可無書院 乃就精舍舊基 闢地營建 自吳山奉位版移安于本院 并妥眞像于北壁)”

		金慶長	善山士林 奉安眞像于元堂 先生與金龜巖 往參將事
		張應一 蔡楸	竹亭立祠之論已久 與聽天堂張公柏浦蔡公 更議營建 發文通告于士林
1645	65	金慶長 鄭克後	與金龜巖鄭徵士克後 泛舟砥柱碑下 泊不知巖
		金慶長	長孫宇翰冠 請金龜巖 主其禮
1653	73	申悅道	申櫛齋來訪
1654	74	金應祖 申悅道 張應一	與金鶴沙申櫛齋張聽天堂諸賢 建議不知巖先師講道之所 不可無書院 乃就精舍舊基 闢地營建

만회당의 중, 장년시기의 교류권을 살피기 위해 문집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만회당이 다른 사람을 위해 보낸 만시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만시는 만회당이 존경하는 선배 세대이다. 대상자는 장현광(張顯光), 김광계(金光繼), 김종효(金宗孝), 배상호(裴尙虎), 이희용(李希雍), 도신수(都愼修), 김여권(金汝權), 권응생(權應生), 김휴(金休)이다.

〈표 4〉 만회당의 만시를 통해 본 교류권

이름	본관	호	거주지	학맥	비고
張顯光	인동	旅軒	인동		
金光繼	광산	梅園	예안	한강 여헌 우복	
金宗孝	순천	伴月堂	인동	한강 여헌	
裴尙虎	성주	愧齋	성주	한강 여헌	
李希雍					
都愼修	팔거	止巖	성주	한강	
金汝權	의성	觀瀾齋	지례	동강 여헌	
權應生	안동	魯軒	경주	여헌	
金休	의성	敬窩	안동	여헌	

김광계(金光繼, 1580~1646)는 본관이 광산이며, 자는 이지(以志), 호는 매원(梅園)이다. 예안 오천 출신으로 근시재 김해(金垓)의 아들이다. 동생 김광실(金光實), 김광악(金光岳)과 같이 여헌의 문하에 입문하였다. 상대적으로 여헌에 비판적이었던 예안권의 대표적인 여헌 문인이다. 1636년 부지암을 방문한 후 20여 일 동안 여헌 문인들과 교류하였다.<sup>56)</sup> 이러한 인연으로 김광

계는 여헌의 문하를 자처하였다.

김종효(金宗孝, 1553~1632)는 본관이 순천이며, 자는 행초(行初), 호는 반월당(伴月堂)이다. 국초 좌의정을 역임하였던 김승주(金承漉)의 후손이다. 부친 김기(金淇)는 여헌이 묘명에 “후덕장자(厚德長者)”라고 적었다. 김종효는 인동의 가락동에서 태어나 어릴 때 한강을 스승으로 모셨다. 선산의 퇴계 문인인 고응척(高應陟, 1531~1605)의 사위가 되었다. 첫 부인과 사별하고 나서 인동 장씨(張潛의 손녀)와 혼인하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학문이 깊었던 여헌 장현광에 감복하여 종유하였다. 아들 구암(龜巖) 김경장(金慶長, 1597~1653)을 여헌 문하에 보내어 학문을 잇도록 하였다.<sup>57)</sup>

도신수(都愼修, 1598~1651)의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자는 영숙(永叔), 호는 지암(止巖)이다. 아버지는 무공랑(務功郎) 도여유(都汝兪)이다. 낙재 서사원의 문인인 도성유의 종질이기도 하다. 갑인예송의 주론자인 도신징(都愼徵)의 형이다. 낙재 서사원(徐思遠)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한강 정구(鄭逯)를 스승으로 모셨다. 달성의 용호서원(龍湖書院)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지암집』이 있다.<sup>58)</sup>

김여권(金汝權, 1557~1640)은 본관은 의성이며, 자는 자중(子中), 호는 관란재(觀瀾齋)이다. 지례현 울안마을(현 구성면 작내리)에 살았다. 족친인 동강 김우옹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만년에는 여헌 장현광을 스승으로 받들었다.<sup>59)</sup> 김여권의 아들로 익(鉞), 협(鋹), 확(鑊), 호(鎬)가 있었다. 김여권의 딸은 장내적(張乃迪)과 혼인하였다.<sup>60)</sup> 김확(金鑊)은 여헌의 『금문제현록』에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익의 아들인 김덕이(金德頤)는 장잠(張潛)의 후예인 장내정(張乃貞)의 딸과 결혼하였다. 의성 김씨 집안과 인동 장씨 집안은 혼척으로 맺어져 있다. 집안에서는 울안마을(현 구성면 작내리)에 1864년 김여권을 제향하기 위해 경인사(景仁祠)를 세우고 문중 자제의 교육을 위해 의

56) 김광계, 『매원일기』 권15, 1636년 병자 4월 22일~5월 14일; 2000, 한국사료총서 43, 국사편찬위원회.

57) 『龜巖先生文集(金慶長)』 권3, 〈先考伴月堂府君行狀〉.

58) 『止巖先生文集(都愼修)』. 권5에는 金應祖를 비롯한 88인의 도신수에 대한 만사가 실려 있다.

59) 『品川史集』 13 및 119.

60) 『남파선생문집』 권1, 「詩」, 〈輓金觀瀾汝權〉.

산서당(義山書堂)을 건립하였다.<sup>61)</sup>

권응생(權應生, 1571~1647)의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자는 명세(命世), 호는 노헌(魯軒)이다. 할아버지는 권덕린, 아버지는 권사의(權士毅)이다. 경주 두류에 살았으며, 일찍부터 여헌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권기, 권도 등 세 아들도 여헌의 문인이며, 여헌의 외손자인 박협의 처부이기도 하다. 특히 여헌의 명에 의해 경주의 읍지인 『동경지』를 편찬하였다. 문집인 『두헌유고』는 안동 권씨의 세고인 『두고세고(杜阜世稿)』 안에 수록되어 있다.<sup>62)</sup>

경와 김휴(金休, 1597~1638)의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자는 자미(子美)·겸가(謙可), 호는 경와(敬窩)이다. 안동 임하면 내앞 출신이다.<sup>63)</sup> 1615년(광해군 7) 경암(敬菴) 노경임(盧景任)의 집에 장가들면서 여헌 장현광과 관계가 이루어졌으며, 1616년 봄에는 인동에서 여헌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업을 들었다.<sup>64)</sup> 1616년 겨울 여헌의 명에 따라 『해동문헌록』의 저술을 시작하였다.<sup>65)</sup> 1617년(광해군 9) 폐모론을 주창하였던 정조(鄭造)가 도산서원을 배알하고 심원록에 자기의 이름을 기재해 놓고 가자, 김휴는 이를 보고서 칼로서 이름을 도려내 버렸다. 평생 학문에 뜻을 두고서 선성(宣城; 현 예안)에 한계당(寒溪堂)을 지어 소일하면서 지내었다. 저술로는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이 있으며,<sup>66)</sup> 문집으로는 『경와선생문집』이 남아 있다.<sup>67)</sup>

이들은 대부분 만회당보다 앞선 세대의 인물이므로 만회당의 교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주권의 한강과 김천권의 동강 문화 인물들과 일정하게 교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56년 만회당이 사망하였을 때 그해 12월 정산 선영에 장사를 지냈는데 당시 학사 김응조가 묘지명을 작성하고, 청천당 장응일이 묘갈명을 작성하였

61) 박인호, 2011, 「여헌학맥과 김천」, 『여헌학보』 20, 여헌학연구회.

62) 『杜阜世稿』, 『魯軒遺稿(權應生)』.

63) 박인호, 2006,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2010, 「여헌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서.

64) 『경와선생문집』 권6, 「雜著」, 〈遠堂聞見錄(金休)〉.

65) 『경와선생문집』 권7, 「序」, 〈海東文獻錄序(金休)〉.

66) 김휴, 1969, 「해동문헌총록」, 학문각.

67) 가전 문집의 초고를 바탕으로 金鎭濤와 金羲洛 등에 의해 고종 초기에 간행되었다.

다. 여헌학과의 대표적인 관료와 여헌의 사자인 장응일이 각각 묘지명과 묘갈명을 작성하였다. 장응일은 만회당이 성심으로 아버이를 섬기고 의리로써 스승을 존중한 행의는 다른 사람이 이에 앞설 수 없다고 칭송하였다.<sup>68)</sup> 사망 당시 인근 각지에서 보내온 제문을 문집에서 수록하고 있다. 제문 작성자는 김응조(金應祖), 장응일(張應一), 신열도(申悅道), 김희장(金喜長), 송세룡(宋世隆), 송세달(宋世達), 장이유(張以兪), 향교유생, 오산서원유생 송우경(宋友璟) 등, 부지암서원유생 장경최(張慶最) 등, 향사당 등이다. 뇌문은 장이유(張以兪)가 작성하고 있다.<sup>69)</sup>

〈표 5〉 만회당 사후 제문 작성자 명단

이름	본관	호	거주지	학맥	비고
金應祖	풍산	鶴沙	안동	서애 여헌 우복	
張應一	인동	聽天堂	인동	한강 여헌	
申悅道	이주	懶齋	의성	여헌	
金喜長	순천		인동	여헌	金慶長의 동생
宋世隆	야로	淸溪	성주	여헌	
宋世達	야로		성주	여헌	宋世隆의 동생
張以兪	인동	知分軒	성주	한강 여헌	
鄉校儒生					
吳山書院儒生宋友璟等					
不知巖書院儒生張慶最等					
鄉射堂					

제문에는 오산서원, 부지암서원, 향사당 등 지역의 유관 기관의 이름을 보낸 것이 있다.

야은 길재의 학덕을 기리는 오산서원은 1569년 현감 조천계가 서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sup>70)</sup> 1584년 인동현감으로 부임한 유운

68) 『만회당선생문집』 권4, 『부록』, 〈墓碣銘(張應一)〉.

69) 『구암선생문집』, 〈제만회당장공문〉에도 만회당 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지에서 보내 온 제문을 모두 수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0) 지역에서는 이전에도 길재에 대한 향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竹亭先生逸稿(張潛)』, 『죽정선생연보』, “二十三年甲辰(先生四十八歲) 八月參花洞書院享祀(今吳山書院)” 장학도 관아 동쪽에

룡이 주관하여 1585년 서원을 나월봉 아래로 옮겨 이관하기로 하여 1588년 완성하였다. 당시 관찰사였던 권문해(權文海), 류몽정(柳夢鼎), 아사였던 이희(李熹)가 자금을 대었다.<sup>71)</sup> 원장은 이숙린, 유사는 신계와 이발이었다. 임란으로 황폐화된 오산서원은 여헌 장현광 등이 중심이 되어 1604년 중창하기 시작하여 1606년에는 중건하고 위판을 다시 봉안하였다. 당시 원장은 장광한(張光翰)이었다. 여헌 장현광은 장광한에게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중건 상량문을 직접 지었다.<sup>72)</sup> 1637년 여헌이 사망한 후 함께 묘사를 지내게 되면서 1639년에는 장현광의 위패가 봉안되었다. 여헌 문인들이 오산서원에서 강회를 주도하면서 오산서원은 여헌학파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1654년 부지암서원이 만들어지고 오산서원으로부터 여헌의 위패를 모셔오면서 차츰 여헌학파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광한과 장용한계의 인동 장씨 일부 후손들이 친서인계의 입장을 취하면서 장대현(張大顯)의 오산서원 중창<sup>73)</sup>과 장류(張瑠) - 장대현(張大顯)의 2대에 걸친 송시열과 송준길의 양송 오산서원 추배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sup>74)</sup> 서남대립 과정에서 서원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지역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여헌학파의 오산서원에 대한 영향력이 차츰 감퇴하였다.<sup>75)</sup>

부지암서원은 1654년 여헌의 제자들이 스승의 강학 장소였던 부지암에 서원을 세울 것을 결의하면서 이루어졌다. 1639년 오산서원에 봉안하였던 위판을 1655년 묘우에 옮기고 여헌의 진상을 묘사한 영정을 봉안하였다. 사액을 받으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1668년에는 오산서원과 부지암서원의 사액을 청하였다가 오산서원은 사액 받았으나 부지암서원은 편액을 받지 못하였다.<sup>76)</sup> 계속된 노력 끝에 1676년(숙종 2) 사액을 청할 때 동락(東洛), 부지

길재의 사당인 화동서원이 있었다고 전한다(『남파선생문집』 2, 「소」, 〈오산동락양원청액소〉).

71) 『吳山志』 권4, 「고증」, 〈事跡〉.

72) 『玉山志』 5, 「학교」, 〈오산서원〉.

73) 『옥산지』 5, 「학교」, 〈오산서원〉.

74) 『安齋先生文集(張瑠)』 권4, 〈吳山書院重修時移安告文〉, 〈還安告文〉, 〈治隱先生墓道門牆重修告文〉.

75) 박인호, 2006, 「조선 후기 구미 사회의 변화와 갈등」, 『성리학의 본향 구미의 역사와 인물』, 구미문화원, 228~229쪽.

76) 『남파선생문집』 권2, 「소」, 〈오산동락양원청액소〉.

암(不知巖), 임수(臨水)의 삼맛을 올렸는데 동락으로 낙점을 받아 동락서원의 편액을 걸었다.<sup>77)</sup> 이후 여헌을 주향으로 받들었던 동락서원은 여헌학과의 거점이었다. 18세기에는 동락서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정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려졌다.<sup>78)</sup>

향사당은 향중의 원노들이 모여 향중의 일을 의논하는 곳으로 그 설치의 연원은 고려 때까지 올라간다. 향사당에는 좌수와 별감이 근무하였다. 통상 향안을 향사당에 두는데 인동에서는 1534년 죽정 장잠(張潛, 1497~1552)이 향안을 처음 만들었다.<sup>79)</sup> 향안에는 내외조 및 처변이 모두 향안에 든 자라야 등록을 허락했다. 또 선악을 기록한 장부인 선악적(善惡籍)을 두어 좋아하고 미워하며 권하고 징계하는 뜻을 엄하게 하였다. 그러나 선악적을 기록함으로써 사단이 생겨남에 따라 1634년 여헌 장현광이 향안을 불살라 향안이 폐지되었다.<sup>80)</sup> 그러나 만회당 장경우는 1646년 다시 향약을 실행하면서 선악과 악적을 향당에 두어 권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sup>81)</sup> 당시 호장이 육방 이하 인원을 데리고 먼저 향사당을 배알한 후에 공무를 집행하였다고 하므로<sup>82)</sup> 향사당은 인동 지역에서의 향권을 장악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이듯이 지역의 서원과 향사당에서 제문을 보내온 것은 만회당이 당시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만회당이 사망한 후 만사를 보내온 이는 김응조(金應祖), 장응일(張應一), 신열도(申悅道), 박진경(朴晉慶), 여이재(呂爾載), 홍여하(洪汝河), 이주(李紬), 윤집(尹鍊), 이도장(李道章), 신흥망(申弘望), 이원규(李元圭), 정도응(鄭道應), 장영(張錄), 이홍조(李弘祚), 신우덕(申祐德), 정극후(鄭克後), 채

77) 『옥산지』 5, 『학교』, 〈동락서원〉.

78) 『六宜堂逸稿(張大臨)』 권하, 『정문』, 〈方伯巡到時東洛書院呈文〉.

79) 『죽정선생일고』, 『죽정선생연보』, “十三年甲午(先生三十八歲) 又置鄉案法以嚴好惡勸懲之道” 『옥산지』에는 가정 을유(1525)로 적고 있으나 착오가 있는 것 같다.

80) 『옥산지』 7, 『공서』, 〈향사당〉.

81)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二十四年丙戌(先生六十六歲) ○置鄉約 著善籍惡籍序(先生憫鄉俗之漸渝 嘗曰呂藍田鄉約法行 則末世無惡俗 朱文公社倉法行 則凶歲無飢民 乃與一鄉士友相議 定約束條目 置善惡籍於鄉堂 以寓勸懲之方)”

82) 『옥산지』 7, 『공서』, 〈향사당〉.

무(蔡楸), 김하량(金廈樑), 이원록(李元祿), 정기(鄭基), 박혜(朴愷), 이상언(李尙彦), 송석규(宋錫圭), 장이유(張以兪), 황원룡(黃元龍), 이현(李現), 여민제(呂閔齊), 박협(朴俠), 이형원(李亨源), 정시량(鄭時良), 이영세(李榮世), 이형천(李亨千), 황찬(黃燦), 박창휘(朴昌輝), 박황(朴愧), 장건(張鍵), 전형(全榮), 정헌세(鄭憲世), 이집(李稹), 여경(呂儼), 김하영(金廈楹), 김희장(金喜長), 이정기(李廷機)이다.

〈표 6〉 만회당 사후 만사 작성자 명단

이름	본관	호	거주지	학맥	비고
金應祖	풍산	鶴沙	영주	여헌	
張應一	인동	聽天堂	인동	여헌	장현광 사자
申悅道	이주	懶齋	의성	여헌	
朴晉慶	밀양	臥遊堂	선산	한강 여헌	
呂爾載	함양	海翁	서울	여헌	
洪汝河	부계	木齋	문경		서에 우복 문인인 洪鎬의 아들
李埶	경산	學稼齋	성주	한강 여헌	여문10철
尹鍊	과평	星溪	서울		
李道章	광주	鑑湖堂	칠곡	한강 여헌	장응일 사돈
申弘望	이주	孤松	의성	여헌 구견	신지계의 아들
李元圭	홍양	鋤谷	상주	우복	이준의 차자
鄭道應	진주	無忝齋	상주	우복	정경세의 손자
張鉢	인동	訴梅堂	인동	여헌	장현광 손자, 장응일 아들
李弘祚	한산	睡隱	인동	서에	유성룡의 외손자, 이상정의 고조부
申祐德	평산	眞靜	약목	여헌	양송 15현, 장내범 사돈
鄭克後	연일	雙峰	영천	한강 여헌 지산	
蔡楸	인천	柏浦	달성	한강	
金廈樑	선산	江灘	선산	여헌	
李元祿	광주	朴谷	칠곡	허목	
鄭基					
朴愷	밀양		인동		박수일의 손자, 박진경의 조카
李尙彦	경주	城西	영주		이휘음의 아들
宋錫圭	은진		인동		
張以兪	인동	知分軒	성주	한강 여헌	
黃元龍					

李規					장현광 사위인 박진경의 사위
呂閑齊	합양				여이재의 아들
朴恢	밀양	喜懼堂	선산	여현	장현광 외손자
李亨源					
鄭時良			선산		
李榮世	벽진	日休亭	성주	여현	
李亨千	경산	浦隱	성주		이주의 아들
黃燦	덕산				장경우의 손녀사위, 장매의 사위
朴昌輝	밀양		선산		장경우의 손녀사위, 장학의 사위
朴愧	밀양	醉石堂	선산	여현	장현광 외손자
張鍵	인동	玉蘭軒	인동 장곡		장현광의 손자, 장응일의 아들
全榮		海恩	인동		
鄭憲世	진주	竹軒	상주		
李穉	덕수		선산		이우의 손자
呂徹	성산	霽月堂	김천		
金廈楹	선산	訥堂	선산		김경의 아들
金喜長	순천		인동	여현	김경장의 동생
李廷機	영천	漫翁	의성	여현	이민성의 아들

만사는 만회당의 업적과 활동을 칭송하고 평소의 관계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는 ‘어진 행실은 온 세상이 우러렀고 좋은 시문은 내가 항상 탄복하였네, 사십세에 함께 만사를 지었는데 응하는 글자마다 자세하였으니, 의리는 스승의 법을 겸하였고 인정은 형제와 같다’고 안타까워하였다. 채무는 ‘여현 문하에 현사가 있으나 바로 만회당이네, 어려서부터 선생을 따랐고 나이 들어 항상 곁에서 모셨네, 성리의 설을 참여하여 듣고 예법의 장소를 쫓아 따랐네, 선을 좋아하기를 구운 고기 좋아하듯하였고 악을 미워하기를 끊는 물에 손을 댄 듯하였네’라고 만회당의 일생을 평하였다. 박혜는 ‘여러 제자 가운데 제일’이라는 평가를 보내왔다. 문중 학자인 장이유는 만회당이 ‘장씨 가문의 적장손’이라는 위상을 적기도 하였다.<sup>83)</sup>

83) 『만회당선생문집』 권3, 『부록』, 〈輓詞〉. “世皆瞻行誼 吾每喜琳瑯 四十同時誅 惟應字字詳 以義兼師法 求情卽弟兄(李穉)”, “旅門有賢士 曰我晚悔堂 自少從先生 至老常侍傍 與聞性理說 趨隨禮法場 嗜善如嗜灸 惡惡如探湯(蔡楸)”, “魯國多君子 公惟第一人(朴慄)”, “公是吾張嫡長孫(張以俞)”

한편 만사 작성자의 분포를 보면 인동 장씨 집안과 여헌학과 제현뿐만 아니라 문경에 거주하면서 서애와 우복의 학문을 사숙하였던 퇴계학과 거두인 홍여하, 여헌학파의 학문을 이으면서도 차츰 중앙 정계에서 남인을 대표하였던 칠곡의 이도장과 이원록, 우복학파의 학문을 계승하였던 상주에 거주하였던 우복의 손자인 정도응과 이준의 차자인 이원규도 만사를 보내왔다. 만사를 보내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면 기존의 인동, 선산, 의성 외에도 교유권이 문경, 영주, 칠곡, 상주 등지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장경우의 여헌학과 내 위상

여기서는 만회당 장경우 사망 후 진행된 만회당에 대한 추모사업과 출판 사업을 통해 여헌학과 내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만회당 추모 사업으로 인동 장씨 종인이 중심이 된 옥계사와 화산서원 그리고 동락서원 배향을 들 수 있다. 현종대 한강과 여헌의 문인 이름을 적어서 보고하라는 어명이 있었는데 **장현광의 봉사손인 장영이 『십철록』<sup>84)</sup>**을 지으면서 만회당 장경우를 가장 높은 반열에 두었다. 정구의 원유들도 문도록을 지으면서 만회당을 고제로 삼아 입계하였다.<sup>85)</sup> 만회당이 사망한 후 121년이 지난 1777년 집안에서는 옥계사에 만회당의 위판을 봉안하였다.<sup>86)</sup> 옥계사는 장지학 등 종인들이 중심이 되어 고려 충신인 충정공 장안세(張安世)를 제향하는 곳이었는데 후손 중 학행이 출중한 자손을 중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옥계서원으로 승격하였다.

1840년(헌종 6)에는 만회당의 강화처였던 화산서당을 옮기고 강당을 건조

84) +짚은 수학기간이 오래거나 성취한 정도에 따라 붙인 것으로 보인다. 십철이라는 표현은 김경장의 행장(『구암선생문집』 권4, 「부록」, 〈행장(張允相)〉)에도 보인다. “惟我先子文康公 設爐鑪於東洛 作成人才 門下彬彬 德政講學 殆遍于一國 而最親且近者 有所稱十哲言 金龜巖先生與心鶴沙鄭守庵趙潤松張晚悔申櫛齋諸先生 亦得與焉”

85) 『江海文集(張心學)』 권4, 「계장」, 〈晚悔張先生陪亭啓狀〉.

86)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하였다. 원래 화산서당이 있던 곳이 너무 협소하여 거리를 조금 옮겨 봉두산 남쪽 기슭에 세웠다. 강당의 상량문은 장석우가 찬하였다.<sup>87)</sup> 1853년(철종 4) 묘유인 경덕사에 위판을 봉안하고 마침내 서원으로 승호하였다.<sup>88)</sup> 묘유 상량문은 고계 이휘녕이 찬하였다.<sup>89)</sup> 그후 화산서원은 1871년 훼철되었다. 기존의 화산서원의 강당인 화산서당은 2009년 영남대학교 민속촌으로 옮겨갔다. 별도로 2007년 화산서원을 복원하고 극명당 장내범과 만회당 장경우를 모시게 되었다.<sup>90)</sup>

한편 동락서원에 만회당을 배향하려는 논의가 철종말 거론되어, 1843년 강해(江海) 장심학(張心學)<sup>91)</sup>의 이름으로 계장을 올리기도 하였다. 장심학은 배향 청원문에서 만회당 장경우를 “우리 도의 으뜸이며, 사문의 적통 제자(吾道攸宗 師門正嫡)”라고 칭송하였다. 어릴 때부터 여헌을 모시면서 평생 스승을 보좌하여 사문에서의 공으로 본다면 여헌을 모신 묘유에 단독으로 배향할 수 있는 고제라고 적고 있다.

이에 장선생 경우는 어린 나이에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들어 도를 들은 것이 가장 앞섰으며, 노년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힘써 스승의 교화를 받음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명성은 십철에 올랐고 덕은 사과를 겸하였습니다. (중략) 본도 인동의 동락서원은 문강공을 단독으로 배향한 처소요, 선대 조정에서 사액한 곳입니다. 고제를 배향하는 것은 선배의 정한 의론이 이미 있으나 사액 서원에 추배하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거행할 것은 아니한 듯하여, 저희들은 한 도에서 모두 함께 주창하여 천리를 달려 왔습니다. 국사와 공문에서 증거가 될 만한 사적을 모아서 행차하는 길에 공경히 자세히 진술하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은혜로 살피주시옵소서.

87)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憲宗大王六年庚子 花山講堂成(花山 卽先生藏修之地 士林相與爲設楹豆之所 以本基太狹 乃移就數弓地 先立講堂 張新齋錫愚撰上樑文)”

88) 원지편찬위원회, 2008(증보판), 『화산서원지』, 화산서원, 128쪽.

89) 『만회당선생문집』, 『연보』. “當宁四年癸丑 廟宇成(李承旨彙寧 撰上樑文)”

90) 박성용외, 2010, 『화산서당이전 복원보고서』, 영남대학교 박물관, 175~176쪽.

91) 張心學(1804~1865)은 자는 在中, 호는 江海, 본관은 仁同이며, 인동장씨 흥해파에 속한다. 조부는 耳溪 思敬이며, 부친은 應壁이다. 당시 인동 장씨 출신으로 철종대 총융장과 동부승지 등 고위직에 올랐고 또한 무과 출신이지만 문필로 지명하였기 때문에 대표로 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장심학의 묘갈명을 문중 후생인 인동 출신의 遊軒 張錫龍(1823~1907)이 지었다.

(중략) 처음에는 남산에 집을 짓고 나중에는 동락에 글방을 구축해 선사께서 강학할 장소를 만들어 지금의 사문의 종택과 원우가 되었습니다. 선사께서 영천 입암에서 돌아가시자 초상의 모든 범절에 예를 갖추었고 몸소 거문고와 책을 수습하였으며, 관을 모시고 돌아와 장사까지 지내었으니 선생은 사문에 공이 있다고 할 만합니다. (중략) 현종조 한강과 여헌의 문인을 뽑아 보고하라는 명이 있자 문강공의 사손인 위술 신 영이 수찬한 십철록에 선생이 상위의 위치에 있었고, 문목공의 서원 유생들이 만든 문도록에도 역시 선생을 고제로 올려 간행하였습니다. 후학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정성은 오래되어도 사라지지 않아서, 선사의 서원에 배향하고자 함은 백년의 공의이어나 아직도 펼치지 못하여 많은 선비들의 답답함은 더욱 심해질 따름입니다. 또 선생은 문강공께서 믿고 중하게 여긴 집안 종손이옵니다. 어른을 잘 모심이 이와 같으며, 스승의 문하에서 공이 있음이 이와 같고, 도를 일찍 들은 것이 이와 같고, 복종하고 모신 것이 이와 같고, 정맥의 적전과 덕업의 성취가 또 이와 같습니다. 스승이 계실 때는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돌아가신 후에는 존경하고 그리워한 것이 또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배하려는 논의는 송나라 유학자들의 자취를 그대로 따르려는 것도 아닙니다.<sup>92)</sup>

그러나 당시 추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고종대 서원철폐령으로 동락서원까지 철폐되면서 결국 배향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1932년 동락에 영당이 복원되면서 만회당 장경우의 중향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우선 1933년 영당에 종사가 결정되었다. 견산 장명상(張命相)은 1934년 영당 종사시 고유문에서 “곰곰이 생각하건대 만회당은 어린 나이에

92) 『강해문집』 권4, 「계장」, 〈晚悔張先生陪享啓狀(張心學)〉. “張先生慶遇妙齡負茂 聞道最早 服勤到老 熏灸最久 名躋十哲 德兼四科 (中略) 本道仁同之東洛書院 卽文康公覃享之所 而先朝賜額地之也 高弟陪享 已有先輩之定論是白乎 乃額院追配 恐非士林之擅舉是白乎等以 臣矣身等 一道齊聲 千里裏足 略采國乘與公案可據之蹟 敬敷陣於清蹕之路 伏願垂察焉 (中略) 始等南山之屋 晚講東洛之塾 爲先師講學之所 而今焉爲師門之宗宅與院宇 先師之易簣于永川立巖也 初終凡節備禮 躬幹收合琴書 奉襯歸葬 先生之於師門 可謂有功矣 (中略) 顯廟朝有寒旅門人抄報之命 而文康公祀孫衛率臣錄 修十哲錄 而先生居上足之列 文穆公院儒修門徒錄 而亦以先生謂高弟入啓而刊行是白如乎 後學尊慕之誠 愈久而不泯 將欲躋享於先師之院 百年之公議 未伸多士之齋鬱益甚是百分叱除良 又況先生 卽文康公倚重之宗孫也 親切於丈席如是 有功於師門如是 聞道之早如是 服事之久如是 正脈之嫡傳德業之成者 又如是 存焉而杖屨不離 歿焉而羹牆必慕者又如是 則今日追配之論 非但宋儒之軌轍”

문화에 들어가 친히 수업을 받은 바가 가장 오래되었다. 여러 일을 추진함에는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났으며 재사를 짓고 서원을 세운 데는 그의 구획에 힘입은 바가 크다<sup>93)</sup>고 업적을 적으면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추천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에서 보이듯이 후학들에게 있어서 만회당 장경우가 선사 학문의 주맥을 잇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1년 여헌을 주향으로 모신 동락서원이 완전히 복원되고 묘우인 경덕사가 마련되면서, 여헌을 주향으로 모신 묘우에 만회당의 위패가 종향되었다.<sup>94)</sup>

만회당의 글은 1862년(철종 13) 2권 4책으로 『만회당선생문집』으로 간행되었다. 이종상(李鍾祥)은 만회당의 9세손인 장두현(張斗鉉)의 부친인 장용팔(張龍八)과의 종유 인연으로 서문을 지었다. 장두현은 유문을 편집하여 목판본 4권 2책으로 간행하였다.<sup>95)</sup> 그뒤 11세손 장준식(張濬植)이 권4 부록편의 끝에 〈사림통문(士林通文)〉, 〈동락서원입향시고유문(東洛書院入享時告由文)〉, 〈화산서당기(花山書堂記)〉를 추가하여 석인본으로 재간행하였다.<sup>96)</sup>

## 5. 맺음말

만회당 장경우의 일생을 본다면 족대부 여헌 장현광을 모시고 종파를 대표하여 여헌의 현양 사업을 주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경우가 시행하였던 각종 예의와 학규는 스승인 장현광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여헌학파가 여헌의 사망 이후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장경우의 주도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3) 『見山文集(張命相)』 권4, 「축문」, 〈東洛影堂從祀時晚梅堂先生張公時告由文〉. “粵惟晚梅 妙齡登門 親受最久 造詣超倫 建齋創院 賴其規劃”

94) 편집실, 2009, 『만회당선생 동락서원 배향에 관한 고찰』, 『여헌학보』 18.

95) 『竹鳥文集(張斗鉉)』 권2, 「발」, 〈先祖晚梅堂先生遺集跋〉. 죽우 장두현은 선조의 위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1868년 『남파선생문집』도 간행하였다.

96) 목판 초간본은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경인문화사에서 한국역대문집총서(1836)로 1997년 영인하였다. 석인 재간행본은 안동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장경우는 한강 정구가 돌아가신 후에는 여헌 장현광을 받들어 모시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여 진행하였다. 여헌이 돌아가신 후에는 여헌학과 내에서 스승의 추송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갔다. 그는 동문 제자들과 함께 선사의 위판을 오산서원에 봉안하였으며 스승의 문집도 교정하였다. 1654년에는 학사 김응조, 난재 신열도, 청천당 장응일 등과 함께 강학 장소인 부지암에 서원을 세울 것을 결의하고 건물을 세우고 이듬해 오산으로부터 위판을 모셔왔다. 장현광의 원향 추진과 저술 간행에 여헌의 사자인 장응일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장영은 여헌의 제자록인 『십철록』을 지으면서 장경우를 가장 높은 반열에 두었다. 정구의 원유들도 문도록을 지으면서 장경우를 고제로 삼아 입계하였다. 고려 충신인 충정공 장안세(張安世)를 제하는 옥계사에 종인이 중심이 되어 후손 중 출중한 자손을 중향하였는데 장경우를 입향하였다.

한편 장현광을 주향으로 모시는 동락서원에 장경우를 배향하려는 논의가 철종 말 거론되었는데 장경우를 사문의 적통 제자라고 칭송하였다. 평생 스승을 보좌하였으며 학파로서의 독자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문의 공으로 본다면 장현광을 모신 묘우에 단독으로 배향할 수 있는 고제라고 본 것이다. 1932년 동락에 영당이 복원되면서 1933년 영당에 종사가 결정되었다.

그런데 광해군말 인조초의 정국 동향과 관련하여 여헌학파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이첨소에 대해서는 안동·예안권이 동조하였으나 퇴계변무소와 같은 일부 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향후 여헌학파의 영남지역에서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낳았다. 1637년 장현광의 사망 이후 인근 지역의 후학들이 차츰 퇴계학으로 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파적 위기는 여헌의 가학 계승자들을 중심으로 여헌의 유문을 간행하고 강학 지역에 원향 수립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만회당 장경우는 여헌 사망 후 여헌학파를 계승하고 추송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던 대표적 인물이다.

[참고문헌]

『江海文集』, 『見山文集』, 『敬窩先生文集』, 『龜巖先生文集』, 『克明堂先生實紀』, 『岐村先生文集』, 『樂齋先生文集』, 『南坡先生文集』, 『杜阜世稿』, 『晚悔堂先生文集』, 『梅院日記』, 『柏浦先生文集』, 『守庵先生文集』, 『深谷先生文集』, 『安齋先生文集』, 『旅軒先生及門錄』, 『旅軒先生全書』, 『永嘉世稿』, 『永嘉堂通講諸子錄』, 『吳山志』, 『玉山志』, 『六宜堂逸稿』, 『仁祖實錄』, 『竹島文集』, 『竹亭先生逸稿』, 『止巖先生文集』, 『品川史集』, 『海東文獻總錄』, 『虎溪先生遺集』

구본옥, 2014, 『연경서원의 경영과 유현들』, 『한국학논집』 57.  
 \_\_\_\_\_, 2012, 『연경서원의 경영과 조선 중기 대구지역의 유학』, 『퇴계학논집』 11.  
 \_\_\_\_\_, 2012, 『연경서원과 대구 유현 통강록』, 동방.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2005, 『고문서집성』 79,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학수, 2007, 『1635년 퇴계변무소의 추진과 여현학맥의 대응』, 『선주논총』 10.  
 \_\_\_\_\_, 2011, 『17~18세기 의성지역 여현학파의 동향과 현실대응』, 『선주논총』 14.  
 \_\_\_\_\_, 2008,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성용 외, 2010, 『화산서당이전 복원보고서』, 영남대학교 박물관.  
 박인호, 2011, 『여현학맥과 김천』, 『여현학보』 20, 여현학연구회.  
 \_\_\_\_\_, 2008, 『임진왜란기 지방 지식인의 피난살이』, 『선주논총』 11.  
 \_\_\_\_\_, 2006, 『조선 후기 구미 사회의 변화와 갈등』, 『성리학의 본향 구미의 역사와 인물』, 구미문화원.  
 \_\_\_\_\_, 2006, 『해동문헌총록에 나타난 김휴의 학문세계』, 『선주논총』 9.  
 박인호 외, 2010, 『여현학의 전개와 수용』, 보고서.  
 박학래, 2008, 『남파 장학의 생애와 학문활동』, 『동양고전연구』 33; 2012, 『여현학의 전망과 계승』, 예문서원.  
 원지편찬위원회, 2008(중보판), 『화산서원지』, 화산서원.  
 장인재, 2007, 『극명당선생』, 『극명당선생과 만회당선생』, 화산서원.  
 \_\_\_\_\_, 2009, 『남파선생』, 『여현학단』 1, 여현학연구회.  
 \_\_\_\_\_, 2007, 『만회당 선생 장경우』, 『옥산연봉』, 여현학연구회; 2007, 『만회당 선생』, 『극명당선생과 만회당선생』, 화산서원.  
 최정준, 2007, 『만회당의 생애와 학문』, 『동양고전연구』 29; 2012, 『만회당 장경우의 생애와 학문』, 『여현학의 전망과 계승』, 예문서원.  
 편집실, 2009, 『만회당선생 동락서원 배향에 관한 고찰』, 『여현학보』 18.

## The Yeoheon School and the Status of Jang Gyeong-wu

Park, In-Ho\*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and status of Manhoedang Jang Gyeong-wu amid the transmission of the Yeoheon School within the family, as well as the diffusion of the Yeoheon School to the Seonsan and Indong areas. Manhoedang Jang Gyeong-wu (1581~1656) served Yeoheon Jang Hyeon-gwang, along with his father Jang Nae-beom (1563~1640) and his son Jang Hak (1614~1669) filially.

Jang Gyeong-wu looked up to his teacher Jang Hyeon-gwang, whom he served after the death of Hangeung Jeong Gu. Jang led the posthumous conferment of Jang Hyeon-gwang when the latter passed away in 1637. Along with his alumnus, he oversaw the enshrinement of the mortuary tablet for Jang Hyeon-gwang in the Osan Seowon (Confucian Academy) in 1639. He also edited the collection of his teacher's literary works. Along with Kim Eung-jo, Sin Yeol-do, and Jang Eung-il, Jang in 1654 established a building for the Seowon at the Bujiam site that had served as their learning place, and started to enshrine the tablet for Jang Hyeon-gwang that had originally been in Osan there in 1655. Along with Jang Eung-il, who was Jang Hyeon-gwang's adopted son, Jang Gyeong-wu played the leading role in implementing a sacrificial rite at the Seowon and publishing Jang Hyeon-gwang's literary works.

---

\* Professor, Dept. of School of General Educ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Jang Yeong identified Jang Gyeong-wu as a person worthy of the highest status in his compilation of <Sipcheolrok>, a record originally attributed to Jang Hyeon-gwang's disciples. Jeong Gu's alumni also identified Jang Gyeong-wu as the best disciple of Jang Hyeon-gwang in their literary book. Jang Gyeong-wu was also enshrined by the Indong Jang clan at the Okgyesa Shrine where sacrificial rites for prominent descendants were implemented.

Discussions to enshrine Jang Gyeong-wu in the Dongnak Seowon in which Jang Hyeon-gwang was enshrined as the main figure began to emerge at the end of King Cheoljong's reign. Jang Gyeong-wu was praised at the time in government documentation as the rightful disciple of their school of learning. Considering the facts that he devoted himself to assisting his teacher and establishing their school of learning as an independent school, Jang Gyeong-wu was hailed as the best candidate for separate enshrinement in the sacrificial rite conducted at the shrine where Jang Hyeon-gwang was enshrined. The enshrinement of Jang Gyeong-wu in the Yeongdang Shrine occurred in 1933, coming off the restoration of the Dongnak Seowon in 1932.

The young scholars of the region started to be influenced by the Toegye School of Learning after the death of Jang Hyeon-gwang in 1637. Amid the crisis of his school of learning, Jang Gyeong-wu inherited the Yeoheon School of Learning and led the posthumous conferment of Jang Hyeon-gwang.

Key Words: Jang Hyeon-gwang, Jang Nae-beom, Jang Gyeong-wu, Jang Hak, Yeoheon School of Learning